

研究論文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안지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연구원, 중국학 전공
jyahn@aks.ac.kr

박소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연구원, 일본어교육학 전공
parksy@aks.ac.kr

정재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연구원, 인류학 전공
jjy@aks.ac.kr

I. 머리말

II.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III. 강조 축소로 인한 파생 이미지

IV. 교과서 내 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V. 맺음말

I. 머리말

일반적으로 국가 이미지는 “국가 혹은 국민들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일반적인 인식 또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다양한 정보란 해당 국가의 정부·경제·사회·문화 등과 관련된 단서와 사실 등을 의미한다.¹⁾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한 국가의 경쟁력은 전통적인 하드 파워(Hard Power)에서 문화, 가치, 인적자원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하드 파워에서도 한 국가가 지니고 있는 정치·경제·문화가치 등을 포괄하고 있는 ‘국가 이미지’ 혹은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이미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통해 부지불식간 형성된 종합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보통 하나의 이미지는 실제 상황을 통한 직접적 경험보다는 주로 매체(媒體)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며, 또한 일반적으로 매체에 의해 부여된 정보에 근거해 이미지를 발전시킨다.²⁾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회과 교과서는 교육과 학습을 통해 다른 국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타국(他國)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사회과 교과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지식 정보 전달이라는 학습적 의미 이외에도 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공인된 인식과 담론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각국의 사회과 교과서는 한국의 이미지가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성을 띤 유용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기술된 한국 관련 서술을 중심으로 주요하게 도출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무엇인지, 또 이 이미지들이 주제별로 어떻게 분류되고 공통되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도출된 이미지가 파생시킬 한국의 파생 이미지는 무엇이

1) 김유경, 「국가 브랜드 개성의 차원에 대한 연구」, 『광고연구』 여름호(2007), 91쪽.

2) 최진봉·유찬열, 「뉴욕타임즈와 로스앤젤레스타임즈에 보도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분석」, 『동서언론』 제9집(2005), 409쪽.

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2006-2010년 사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³⁾에서 수집된 세계 각국의 사회과 교과서이다. 이 글의 분석 범위는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42개국 총 299권으로, 분석 대상 외국 사회과 교과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이 ‘서술’ 형태로 나타나는 교과서들에 한정시켰다. 언어상의 제약⁴⁾이 있는 국가의 교과서의 경우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통해 분석된 보고서⁵⁾와 한국 관련 내용 번역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1-분석 대상 국가 및 분석 권수

지역	국가별 권수(총 299권)
북미	캐나다(19), 미국(26)
중남미	멕시코(8), 브라질(6), 아르헨티나(5), 우루과이(5), 파라과이(1)
유럽	독일(14), 프랑스(3), 영국(10), 이탈리아(6), 덴마크(2), 스웨덴(2), 체코(2), 그리스(1), 스페인(5), 스위스(1), 터키(1)
러시아·CIS	러시아(23), 아제르바이잔(1), 우즈베키스탄(4), 카자흐스탄(5)
동아시아	몽골(3), 일본(25), 중국(31)
동남아시아	싱가포르(4), 홍콩(14), 태국(1), 인도네시아(3), 베트남(2), 대만(39)
남아시아	인도(2), 방글라데시(1)
아랍·중동	이집트(1), 모로코(1), 이스라엘(4), 쿠웨이트(1), 튀니지(2), 요르단(1), 남아프리카공화국(4)
대양주	호주(4), 뉴질랜드(6)

3)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외국 사회과 교과서를 수집하여 한국 관련 내용 서술 경향의 파악을 통해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의 오류를 시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관 시정사업으로 1982-2002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추진되었다가, 2003년 다시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4) 이 연구의 분석은 언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외국 사회과 교과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국 관련 내용 분석과 이미지 도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 관련 내용에 한해 한정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5)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가 / 권수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러시아, 중국, 대만, 몽골, 아랍권(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수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호주, 뉴질랜드 / 10권	미국(교과서 한국 관련 집필자 분석),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권, 중남미권, 미국(세계사), 미국(세계지리), 유럽 / 10권	브라질·아르헨티나, 유럽·아프리카, 호주·필리핀, 요르단·튀니지·이란·이스라엘·이집트·인도 / 4권	일본·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 러시아·프랑스·영국·아제르바이잔, 미국·캐나다, 멕시코·아르헨티나 / 5권	독일·스페인·이탈리아, 우루과이·파라과이, 미국·캐나다, 러시아·벨라루스·우즈베키스탄, 대만·홍콩·베트남, 인도·방글라데시·오만, 미국, 폴란드, 태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 7권

이 글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첫째, 분석 대상이 되는 국가별 교과서에 서술된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주요하게 등장하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다. 둘째, 주제별 서술 사례를 계량화하여 각각의 서술 비중을 도출한다. 셋째, 서술 비중이 높은 주제를 다시 세부 내용으로 분류하고 정량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파생될 수 있는 국가 이미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머리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글의 주요 분석 대상은 2006-2010년 사이에 수집된 외국 사회과 교과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이 있는 42개국의 299권 교과서이다. 이들 교과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한국 관련 내용은 한국전쟁, 한국역사, 한국경제, 한국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이들 내용에 대한 서술 건수와 지역 및 국가별 분석 교과서 권수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한국정치 서술 건수는 18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국역사 114건, 한국경제 96건, 한국문화 69건, 기타 30건으로 분류된다. 각 주제별 서술 내용을 보다 세분화·정량화하여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한국전쟁은 세계사 교과서에서 주요하고 필수적인 주제로 다루어지며,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동서 대립의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으로 설명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한국전쟁 발발 배경, 전개 과정, 휴전 및 분단까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개괄하고 있으며, 참전 여부 또는 전쟁으로 인한 영향 등에 따라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핵 문제, 통일전망 등에 관한 언급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표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에 관한 일반적 개괄 수준의 서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6) 한국 관련 내용 건수가 의미하는 바는 외국 교과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주제인 한국정치, 한국역사, 한국경제, 한국문화 관련 서술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각각의 서술 내용을 '1건'으로 수치화하였다.

표2-지역 및 국가별 분석 교과서 권수 및 한국 관련 내용 건수⁶⁾

지역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CIS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랍·중동·아프리카	대양주	합계
한국 내용 권수 / 국가별 분석 권수	캐나다 (19/19) 미국 (88/26)	멕시코(14/8) 브라질(12/6) 아르헨티나 (8/5) 우루과이(6/5) 파라과이(1/1)	독일(17/14) 프랑스(5/3) 영국(13/10) 이탈리아 (12/6) 덴마크(3/2) 스웨덴(6/2) 체코(2/2) 그리스(1/1) 스페인(7/5) 스위스(1/1) 터키(1/1)	러시아 (41/23) 아제르바이잔 (1/1) 우즈베키스탄 (44) 카자흐스탄 (9/5)	몽골(6/3) 일본(53/25) 중국(33/31)	싱가포르(7/4) 홍콩(15/14) 태국(3/1) 필리핀(3/3) 베트남(3/2) 대만(51/39)	인도(4/2) 방글라데시 (1/1)	이집트(4/1) 모로코(1/1) 이스라엘(6/4) 쿠웨이트(3/1) 튀니지(2/2) 요르단(1/1) 남아프리카공화국 (5/4)	호주 (9/4) 뉴질랜드 (8/6)	(489권 / 209권)
한국 정치	30	23	33	20	27	26	4	10	7	180
한국 역사	26	3	10	15	28	23	0	7	2	114
한국 경제	18	15	19	16	10	10	1	4	3	96
한국 문화	23	0	3	1	17	21	0	1	3	69
기타	10	0	3	3	10	2	0	0	2	30
합계	107	41	68	55	92	82	5	22	17	489

고대사 부분에서 한국역사는 주로 한반도의 일부를 고대 중국의 영토에 포함하거나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당 문화의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서술되는 사례들도 발견된다. 이후 근현대사로 넘어오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확장에 따른 일본 식민지로의 편입이라는 흐름에서 한국이 다루어지고 있어 피동적이고 타율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다.

한국경제에 관해서는 단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신흥공업국으로 서술하는 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 긍정적인 관점에서 신흥공업국 중 모범국가로 평가하기도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반되었던 열악한 노동환경, 인권문제, 환경문제, 정경유착 등을 비판하는 서술 사례들도 간혹 나타나며, 외환위기와 극복에 관한 서술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3-각 주제별 서술 내용

주제	서술내용	소계	합계
한국정치	한국전쟁 일반적개괄	168	180
	핵문제	5	
	2000 남북정상회담/햇볕정책	7	
한국역사	고조선	1	114
	고대사 중국편입	24	
	삼국/통일신라	8	
	고려/몽골 침략	8	
	조선/임진왜란	7	
	청일/러일전쟁	19	
	일제식민지	43	
	광복 이후 분단	4	
한국경제	신흥공업국/경제성장	76	96
	한국경제의 문제점	4	
	외환위기	16	
한국문화	한글창제	11	69
	인쇄문화/도예	14	
	의식주	8	
	종교/유교	6	
	중국영향	22	
	일본으로의 전파	2	

한국문화에 관한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중국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내용, 한국의 인쇄술, 한글의 독창성을 평가하는 내용, 중국문화를 일본으로 전달하는 가교로서의 평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문화의 강한 영향을 강조하는 교과서는 중국과 대만 교과서에서 매우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서술의 편중성을 발견할 수 있다.

기타 30건에 관한 내용으로는 서울의 인구분산정책,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 5대 채무국가, 민주적이지 못한 공화정,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의 전망, 민주주의 갈등 등 국내정치 현황, 외국에서의 악덕 한국기업의 문제 등이다.

앞의 표2와 표3을 통해 도출된 정량적 분석을 토대로 각 주제별 분류에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이미지, 즉 ‘역사적으로 피동적·타율적인 국가 이미지’, ‘한국전쟁에 의한 전쟁국가 및 분단국가의 이미지’, ‘신흥공업국

으로서의 공업국가 이미지', '소략·축소된 문화적 이미지'⁷⁾를 외국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국의 주요 이미지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⁸⁾

1. 역사적으로 피동적·타율적인 국가 이미지

한국이 역사적으로 피동적·타율적이라는 국가 이미지는 한국사 전개 과정에서 역사적 주체가 한국이 아닌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으로 대표되는 주변 강대국의 주도권 변화에 따라 피동적이고 타율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앞 절의 표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국 고대사에서 당시 중국이 한반도에 미친 강한 영향력에 대한 확대 해석과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 등을 통해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4는 한반도 역사 전개와 관련된 외국 교과서 서술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지역별로 정리한 것으로 '피동적·타율적' 이미지로 나타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교과서 서술에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피동적·타율적이었던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국가는 중국과 일본이다. 중국 역사교과서의 경우 고대사에서 한반도 영토의 일부를 자국 영역 내에 편입⁹⁾시키거나 한국사를 변방사에 포함시키는 등¹⁰⁾ 현재 중국 주류학계의 관점을

7) 한국문화에 관한 서술은 타 주제에 비해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거나 동아시아 문화권으로 한데 묶어 보는 견해가 많다. 한글 창제와 인쇄문화 등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언급하는 서술들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 캐나다, 일본의 지리교과서에서만 서술되는 등 지역적 편중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소략·축소된 이미지'로 설정하였다.

8) 물론 이 글에서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공통된 주요 이미지를 상술한 네 가지로 분류하였지만, 이 이미지들이 국가별로 골고루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의 정치·역사·경제·문화적인 관계에 따라, 혹은 한국과 얽혀 있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입 여부에 따라 국가별·권역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나타난다.

9) 중국 역사교과서, 중국 고대사 부분에서 사용되는 지도는 중국지도출판사(中國地圖出版社)에서 제작된 지도를 사용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역사 교육 과정 개혁으로 인해 중국 역사교과서에서 지도를 포함한 한국 관련 내용이 이전 교육 과정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분석된 중국 역사 교과서 중 중국 고대 중국사, 중국 강역도에서는 여전히 예외 없이 한반도의 일부를 중국 동북부에 포함시켜 나타내고 있다.

10) 課程教材研究所, 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中國歷史』七學年 下冊(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8), 25-26쪽. 중국역사(中國歷史) 교과서에서는 발해를 당의 지방정권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관련 서술배치에서도 '화동위일가(和同爲一家)'라는 제목 아래, 현재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장족의 조상인 토번(吐蕃), 위구르족[回紇]과 함께 발해를

표4-역사적으로 피동적·타율적인 국가 이미지

지역\이미지	주체적·능동적		중립		피동적·타율적	
	전근대	근대 이후	전근대	근대 이후	전근대	근대 이후
중국					○	○
일본					○	○
미국					○	○
유럽					△	○
러시아·CIS					△	○
동남아시아	△ (필리핀)				×	×
중동					△	○
중남미					×	×
호주					×	×

(○: 그렇다, △: 일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국가 형성 과정은 물론, 한사군, 임진왜란, 청일전쟁, 한국전쟁 등과 같은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항상 한국의 '요청'에 의해 중국이 개입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은 고대에서 근대에까지 지속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강한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은 물론 한반도 정권의 중국에 대한 의존적 이미지를 동시에 강조한다.

일본 교과서의 경우 전근대 한반도의 국가 형성에 대한 서술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당시 한반도와 중국과의 조공·책봉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한다. 또한 근대 이후의 역사적 서술 전개에서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 의도는 은폐한 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대립구도만을 강조함으로써 일본 자국의 역사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등 한국사를 타율적으로 전개하는 식민사관의 잔재가 뚜렷이 남아 있다.

외국 사회과 교과서 중 비교적 많은 한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교과서의 경우에도¹¹⁾ 전근대 동아시아 서술에서 한반도가 중국의 정치·역사·문화적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잠재적 서술관점을 견지하고

서술하고 있다. 보조자료로 사용된 '당조후기 강역과 변방 각 민족의 분포(唐朝後期疆域爲邊疆各族的分布)' 지도에서도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발해가 당시 중국 변방 소수민족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다. 내용 기술에서도 일률적으로 7세기 말에 속말말같이 부족을 통일하고 발해를 건국하였으며, 당 현종이 그곳에 주(州)를 설치하고, 그 수령을 도독으로 삼아 발해군왕으로 봉했다(7世紀末, 靺鞨族的一支粟末靺鞨統一各部, 建立起政權. 後來唐玄宗在那里設州, 以其首領爲都督, 封渤海君王.)고 기술하고 있다.

11) 총 299권 489건의 한국 관련 건수 중 미국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88건으로 전체 건수에서 18%에 해당한다.

있다. 또한 한사군, 몽골의 고려 침입, 일본 식민지, 미·소 강대국에 의한 남북 분단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타국과의 관계를 ‘점령과 통치¹²⁾’로 표현함에 따라 한국은 독립적·주체적 국가 주체가 아닌 주변 강대국에 의해 좌지우지된 피동적·타율적 국가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다.¹³⁾

이와 같은 이미지는 유럽 및 러시아 교과서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유럽 교과서에서 전근대 이전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거나 중국의 통제하에 있었으며¹⁴⁾, 근대 이후에는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정책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역 중 하나로 그려진다. 또한 이와 같은 이미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¹⁵⁾

12) 최정희, KU-CR-07-07 「미국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2007). 한 예로 미국 교과서 중 Jerry H. Bentley, Herbert F. Ziegler, *Traditions and Encounters: 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Glencoe: McGraw-Hill, 2006)의 경우 한국역사 관련 서술에서 ‘점령’이라는 단어로 한국 관련 서술을 검색해보면 중국 왕조별로 한국은 중국에 전부 혹은 영토의 일부가 점령당한 국가로 나타난다.

시기	서술 내용
중국 전국시대 (B.C. 403-221)	지도 <전국시대의 중국(B.C. 403-221)> [중국 연나라(Yan) 영토가 압록강 건너 한반도 일부에까지 이른 것으로 표시됨]
중국 진왕조 (B.C. 221-207)	지도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압록강 하구에 다다른 것으로 표시됨]
중국 한왕조 (A.D. 220)	지도 [한 무제의 지배 영역에 한강 유역을 포함한 한반도 북서부가 포함된 것으로 표시됨]
중국 수왕조와 당왕조 (A.D. 589-907)	지도 [신라 왕조의 영역이 금강과 낙동강 이남으로 표시됨]
중국 당왕조	7세기 동안에 당나라 군대는 신라 왕조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배를 저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 이전까지 한국의 많은 부분을 점령하였다.
중국 송왕조 (A.D. 960-1279)	지도 [한반도 전체가 금나라(Jin)의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됨]
현대 세계질서 재편 (1914-현재)	미국은 일본을 단독으로 점령한 반면, 한국의 경우 남쪽은 미국에 의해 북쪽은 구소련에 의해 반씩 분할 점령되었다.

13) 이길상·전택수, KU-CR-07-01 「미국 교과서 한국 관련 집필자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2007).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세계사 교과서 저자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학 및 일본학 관련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일본과 역사해석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시각이 반영하여 집필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14) 독일 교과서의 경우 중국 연대표에 ‘668년 한국과 만주가 중국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표기되어 있다(Karin Laschewski-Müller, *Kursbuch Geschichte – Neubearbeitung.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Berlin: Cornelsen, 2009, p. 54). 이탈리아 교과서의 경우에도 한국을 ‘중국의 봉신국’(Antonio Brancati, Trebi Pagliarani, *il nuovo DIALOGO con la storia 3il Novecento* (Milano: La Nouva Italia, 2007, p. 42)으로 나타내고 있다.

15) Ben Walsh, *Edexcel GCSE Modern World History* (London: Hodder Education, 2009), pp. 52-53; Christian Bouvet, Jaen-Micheal Lambin, *Histoire-Geographie* (Paris: Hachette, 2003), pp. 96-97.

러시아 교과서 역시 전근대 한반도와 중국관계, 근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설명할 때 ‘통치’¹⁶⁾라는 표현을 사용해 한국은 주체적 독립국가가 아닌 중국의 속국이였다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¹⁷⁾

외국 사회과 교과서 중 유일하게 필리핀 사회과 교과서만이 임진왜란 서술을 통해 비록 중국 원군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외세 침략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라는 내부의 주체적 역량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를 지켜낸 한국의 국가적 역량을 나타내고 있다.¹⁸⁾ 또한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드물게 고구려를 한반도 북부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북아시아 유목민과 중국군에 대항해 지켜낸 민족으로서술함에 따라 전근대 한반도 국가와 중국의 관계에서 중국과 대등한 혹은 적어도 독립국가로의 주체적 역량을 가진 국가로 한국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외국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역사 관련 서술은, 한국전쟁을 제외한 부분은 단지 한두 줄의 단편적인 서술이나 지도·역사연표에서 식민국가로 표기되는 등에 그쳐 한국은 역사적으로는 잊혀진 존재로 그려진다.

2. 한국전쟁에 의한 전쟁국가 및 분단국가 이미지

표3의 각 주제별 서술 내용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국정치와 관련된 서술 총 180건 중 한국전쟁이 168건으로 가장 많으며, 서술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부분의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나타난다.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피동적·타율적이거나 혹은 단편적·과편적인 서술로 인해 완전한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습자들이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접하는 이미지가 바로 한국전쟁에 의한 전쟁국가 및 분단국가로서의 이미지가

16) 러시아 교과서에서도 ‘중국 당나라의 황제 총독들이 베트남과 한국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서술이 나타난다. M. A. Бойцов et al., *История Средних Веков 6*(Moscow: русское слово, 2005). p. 243.

17) 정재윤, KU-CR-06-0 5 「러시아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2006), 171쪽.

18) Grace Estela C. Mateo, et al., *Asian civilization: History and culture*(Quezon city: Vibal Publication, 2006), p. 174.

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전쟁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입장과 역사적 인식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중국, 미국과 같은 한국전쟁 참전국의 경우 한국전쟁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인민해방군을 파병한 중국의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은 ‘미국에 대항해 조선을 원조하고(抗美援朝), 가정을 보호하며 국가보위(保家爲國)¹⁹⁾를 달성한 전쟁이다. 즉, 한국전쟁은 중국 영공과 대만해협을 침입한 미군의 위협에 중국이 북한을 도와 참전한 전쟁으로, 중국과 미국이라는 이항대립 구도 속에서 서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전쟁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입장이나 인적·물질적 피해 등은 배제된 채 단지 북한의 ‘요청에 의해 주변국에 대한 보호자 혹은 구원자로서의 중국의 이미지만이 강조²⁰⁾된다.

냉전의 또 다른 한 축이자 참전국인 미국의 교과서에는 한국전쟁의 발발 및 전개 과정, 그에 따른 영향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한국전쟁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어서 비록 남북한 간에 휴전협정은 체결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대치 상태이며, 이로 인한 불안은 2006년 시작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으로 더욱 증가되었다²¹⁾고 서술하여 불안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긴장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서술은 한국은 여전히 전쟁국가라는 이미지를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북한이라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일조하였다.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폴란드·스웨덴 등 대부분의 유럽 지역 교과서는 한국전쟁을 냉전시대의 주요한 사건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교과서는 한국전쟁의 잔인함과 처참했던 전시 상황을 피카소의 작품인 <한국에서의 학살>을 통해 무분별하게 자행되었던 폭력성을 극적으로 형상화하였다.²²⁾

19) 李季湄 主編, 『品德與社會』六年級 上冊(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6), 44쪽.

20) Ahn Ji-Young, “Narratives of the Korean War in Chines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2, No. 1(2009), pp. 35-36.

21) Jackson J. Spielvogel, *World History*(Glencoe McGraw-Hill, 2008), p. 1,028쪽.

22) Anton Golecki, *Geschichte der USA*(Bamberg: C. C. Buchner, 2000), p. 103;

러시아의 경우, 미국과 중국처럼 한국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한국전쟁 개입 여부와 개입 정도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고 일부 회피하는 서술²³⁾을 통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축소하여 자국의 입장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및 중국의 시각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 지역 국가 교과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한국전쟁에 의한 전쟁국가 및 분단국가 이미지는 미국과 구소련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냉전, 이로 인해 발생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NATO의 창설, 분열된 독일과 남북 분단, 쿠바의 미사일 위기와 북한의 핵개발 등의 역사적 흐름의 연결선상에서 그려진다.²⁴⁾

이와 같이 외국 교과서에 나타난 전쟁국 및 분단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는 타국의 정치적 입장과 역사적 인식에 따라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부정적인 공동의 역사적 기억이 외국 교과서에서 강조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전쟁이 가지는 부정적인 속성으로 인해 정작 전쟁 당사자인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공식적 기억이 해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공식적 기억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물론 ‘한국이 전쟁국이었다’라는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이었으며, 얼마나 성공적인 사례였는지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국가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북한의 위협’이라는 강한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는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폐허가 된 도시, 전쟁고아, <한국에서의 학살> 그림 등과 같은 시각적인 매체가 주는 정보와 결부되어 이를 접하는 학습자의 시각에 따라 한 가지에서 수십 가지²⁵⁾의 파생적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다.

Guillaume Le Quintrec et al., *Histoire*(Paris: Nathan, 2008), 104쪽.

23) Jeong Jae Yun, “The Korean War in European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2, No. 1(2009), pp. 65-67; 기계형, 「러시아 대학의 역사학 교재와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 『역사교육』 제117집(2011), 91-98쪽.

24) J. Willian Vesentini, *Geografia série brasil*(Editoria Atica, 2006), p. 458. 브라질 교과서의 경우 남북의 통일 노력으로 ‘군건한 경제력을 갖춘 남한과 핵무기를 소유한 북한이 통일하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강대국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5) 김상미, 「전쟁 관련 사진전에 나타난 공식기억의 양상과 분단 이미지 -기록과 예술의 매체로서의 사진-」, 『인문과학』 제47집(2010), 181쪽.

표5- 신흥공업국으로서의 공업국가 이미지

지역 \ 이미지	경제발전 신흥공업국	발전요인 (외국원조)	경쟁국
미국	○	○	×
중국	○	×	×
일본	○	○	△
유럽	○	○	×
러시아·CIS	○	○	×
동남아시아	○	×	○(일부)
중동	△ (일부 개발도상국)	×	×
중남미	△	○	×
호주	○		×

(○: 그렇다, △: 일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3. 신흥공업국으로서의 공업국가 이미지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신흥공업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는 총 96건의 한국경제 관련 서술 건수 중 76건으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경제의 발전요인과 경제적 위상 등에서는 국가별·지역별로 편차를 보이지만, 한국이 전후(戰後) 빠른 경제발전을 통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미국 교과서의 경우 1960년대 시작된 한국의 경제발전은 1980-1990년대 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한국이 비록 세계 경제사에 드문 단시간 내에 빠른 경제발전은 이루었지만, 그 주 원동력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원조(The nations also received large amounts of economic and from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Cold War)²⁶⁾였던 점을 명확히 하여 발전 주체로서의 한국의 주도적·주체적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미군의 남한 주둔 등의 정치적 불안요인을 함께 부각시켰다.

미국 교과서의 경우 1960년대 시작된 한국의 경제발전은 1980-1990년대 초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26) Susan Ramirez et al., *World History: Human Legacy*(Harcourt Education Company, 2008), p. 929.

한국이 비록 세계 경제사에 드문 단시간 내에 빠른 경제발전은 이루었지만, 그 주 원동력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원조(The nations also received large amounts of economic aid from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early stages of the Cold War)’였던 점을 명확히 하여 발전 주체로서의 한국의 주도적·주체적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북한의 위협과 미군의 남한 주둔 등의 정치적 불안요인을 함께 부각시켰다.

후발 신흥공업국이자 강대국인 중국의 경우, 한국을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빠른 경제발전으로 이미 현대화된 한당로 묘사된다. 중국 교과서에서 한국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국²⁷⁾이자 중국에 해외공장을 설립한 국가²⁸⁾로 그려진다. 이와 같이 한중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서술 등을 통해 중국 교과서에서 그려지는 한국의 경제적 이미지는 비록 신흥공업국이지만 중국에 직접해외투자를 하는 투자국이자 이미 산업기반이 중화학공업에서 자본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이동한 성숙한 단계의 신흥공업국으로 그려진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의 경제발전 서술에서 강권적 정권에 의한 경제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는 있지만, 또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의 국제경쟁력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했고, 민주화 운동의 결실에 따른 노동환경 개선과 OECD 가입 등으로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첨단산업 발전에 따른 일본의 위기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대만 등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일본의 기술이전으로 1990년대 급성장했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 이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원조를 강조²⁹⁾하고 있어 경제 선진국 진입단계의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경제·기술 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이미지 역시 부각시켰다.

유럽 교과서의 경우, 신흥공업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경제만을 단독으로 서술³⁰⁾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네

27)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地理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地理』(必修)(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4), 94-95쪽. 이 교과서에서는 중국 주하이[珠海]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8) 戚万學, 『品德與社會』 五年級 下冊(北京: 教育科學出版社, 2006), 94쪽. 한국이 중국에 해외공장을 설립한 한 사례로 베이징 현대자동차공장을 들고 있다.

29) 박소영, KU-CR-09-01 『일본,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2009), 92쪽.

마리 호랑이·용·사자)들과 함께 서술된다.³¹⁾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대한 평가에서 빠른 경제발전을 이룬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부주도하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긍정적 요인과 함께 정경유착, 특혜, 한국형 재벌 등의 정부주도형 경제발전의 부정적인 요인도 함께 서술하여 이로 인한 한계도 명확히 하였다.

대부분의 유럽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신흥공업국으로서의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민주화 및 남북분단 등의 사회적·정치적 불안요인을 함께 짚어주고 대부분의 교과서 지도상에 '남북 구분선' 표시를 함으로써 여전히 한국을 후진국으로 표시하는 점이다. 이는 북반구 선진국가와 남반구 후진국가라는 전통적인 서구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속하는 홍콩, 싱가포르 교과서의 경우, 한국은 아시아 신흥공업국 중 하나(아시아 네 마리 용 중 하나)이자 세계 수출시장에서 자국과 유사한 수출품목에서 경쟁하는 수출 경쟁대상국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같은 동남아 국가라 할지라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교과서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발전 단계에 대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다.³²⁾

러시아 교과서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된다. 한국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미국의 경제원조와 장시간의 노동, 노동조합 금지, 대기업 위주의 성장 등 정부 주도하의 경제정책과 한국의 높은 교육열이 뒷받침되어 빠른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교과서들이 정부주도하의 한국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데 반해 경제성장을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들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30) Annette Ciattoni, *Geographie*(Paris: Hatier, 2004), p. 213.

31) Simon Ross et al., *Essential AS Geography* (Cheltenham: Nelson Thornes, 2000), pp. 374-375; Garrett Nagle et al., *AS & A Level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 154; Paul Guinness, *Globalisation*(London: Hodder Murray, 2003), pp. 104-108; Andy Palmer et al., *Edexcel (A) Advanced Geography* (London: Phillip Allan, 2005), pp. 431-436; Franz Xaver Heckl et al., *Fundamente Kursthemen. Der asiatisch-pazifische Raum*(Gotha: Klett-Perthes, 2003), p. 179.

32) 인도네시아 교과서의 경우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룬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자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필리핀 교과서의 경우에도 한국은 단기간에 아시아 신흥공업국 중 하나로 부상한 국가이자 아시아태평양회의, 한국 필리핀 간의 경제개발협력기금 조약체결 등 아시아 국가 간 경제협력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로 그려진다.

있는 조건이 되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과거 낙후한 농업 국가였던 한국은 오늘날 자동차 및 철강을 생산하는 ‘경제기적’을 이룩한 나라로서 산업형 로봇이 있는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³³⁾

한국경제 발전에 대해 가장 냉소적인 국가는 중남미 국가들이다. 멕시코 교과서의 경우 한국을 신흥공업국으로 간략히 언급만 하거나, 아시아 호랑이 중 모범케이스로 평가하면서도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제조업 중심의 수출국가로 평가절하하고 있다.³⁴⁾ 유일하게 브라질 교과서만이 하나의 독립 절로 한국 관련 내용을 편성하여 한국을 아시아 호랑이의 모범국가로 평가하고 있고, 한국 국민의 근면성, 효율적인 자본공급, 외국제품 수입차단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법령제정 등의 엄격함을 주요 성장 동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으로 요구된 희생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사회주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 벨트로서 아시아 호랑이 국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 교과서에는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부정과 긍정, 무관심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4. 소략·축소된 문화적 이미지

앞의 표3에서도 나타나듯이 총 489건의 한국 관련 건수 중 한국문화 관련 건수는 69건으로, 전체 한국 관련 건수에서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나마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도 우리만의 문화적 독창성이 강조 또는 차별화되지 못하고 중국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문화에 포함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과 창조성이 부각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미국, 일본 등 한국과 관계가 밀접한 주변국 사회과 교과서에 한정되며, 이 이미지마저도 중화문화권의 아류라는 이미지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33) Н. В. Загладин, *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 векХХII*(Moscow: русское слово, 2005), pp. 333-334; В. И. Максаковски, *Географи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 социальная 10* (Moscow: ПРОСВЕЩЕНИЕ, 2008), p. 95; В. П. Максаковский, *ГЕОГРАФИЯ 10* (Moscow: ПРОСВЕЩЕНИЕ, 2000), pp. 208-209.

34) Marialba Pastor, *Historia Universal Contemporánea*(Santillana, 2008), p. 279.

총 69건의 외국 사회과 교과서 내 한국문화 관련 내용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는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문화적 독창성과 우수성을 가진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이다. 둘째, 문화의 전파에서 중국 대륙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가교(架橋)로서의 이미지이다. 셋째, 다방면에서 중국의 지대한 문화적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문화적 교류와 창조를 통해 나름의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나갔지만, 결국 문화적 근원인 중국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문화적 이류로서의 이미지이다.

먼저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과 우수성이 강조된 외국 사회과 교과서로는 일본과 카자흐스탄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 교과서는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전통문화를 형성한 점에 주목한다.

일본 교과서는 한국문화 가운데서도 온돌, 김치, 한복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의식주 문화에 대해 매우 관심 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돌의 원리를 삽화로 설명하고, 김치 담그는 방법과 전통적인 김장 저장법, 김치냉장고의 등장, 한국 전통 저고리·바지·치마 사진을 보여주고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며 자세한 사진자료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을 그림으로 보여주며, 한글을 독자적인 문자로서 평가하고 있고, 나아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현상과 활발한 한일 문화교류를 다루는 등 최근 일본 국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다.³⁵⁾

일본과 같이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과 창조성을 높이 평가하는 교과서로는 카자흐스탄 사회과 교과서를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측우기, 종이, 도자기, 팔만대장경을 언급하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했다’³⁶⁾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35) 王秋原, 『社會 4』(臺灣: 南一書局, 2009), 66쪽. 대만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최근 대만 내에서 불고 있는 드라마, K-팝 등의 한류 열풍을 교과서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한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어서 2000년부터 한국 드라마가 몰고 온 한류는 문자, 음식, 패션 등의 분야를 포함해, 한국 제품과 문화에 대한 호감을 이끌어냈다고 적고 있다. 또한 한국은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로 인해 문화 전파 및 국제적 지위 향상의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한류를 제외한 전근대 중국이 한반도에 미친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의 문화적 근원이 중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6) 베이세노바 알리야 사르세노브나 외, 『지리 -세계지역개관-』(맥텡, 2007), 135-136쪽.

다음으로 문화의 전파에서 나타나는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가교로서의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주로 미국과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서 나타난다.

미국 교과서는 한국이 중국 대륙문화를 일본으로 전파하는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으며, 그 속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을 발전시킨 독창성 있는 민족이라고 소개한다.³⁷⁾ 그러나 한국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서술 맥락에서 한반도 전체에 미친 중국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나간 한국의 이미지와 중화 문화권에 종속된 중국의 문화적 아류라는 이미지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일본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다루는 부분에서 일본 고대국가 형성기에 영향을 받은 한반도의 문화적 요소에 대해 어느 정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고대국가 간에 수많은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문화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당시 한반도의 역할은 대륙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는 가교였다는 점에만 의미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문화적 아류로서의 한국문화의 이미지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는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 사회과 교과서에서 주로 강하게 나타난다.

중국, 대만 사회과 교과서에서는 고대 신라와 당 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당시 한반도와 중국 간의 밀접한 우호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양국 간의 우호적인 교류관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당시 중국의 정치제도·선진문화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중세 한반도의 정치제도, 문화는 물론 종교, 생활관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국문화의 문화적 근원은 중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³⁸⁾

37) Jackson J. Spielvogel, *World History*(Glencoe: McGraw-Hill, 2008), p. 525; Susan Ramirez, Peter Stearns, Sam Weinberg, *World History: Human Legacy*(Holt, Rinehart and Winston, 2008), p. 326. 이 두 교과서에서는 한국에 대해 한글이라는 독특한 알파벳을 개발하였으며, 청자(celadon)라고 불리는 청록색 유약을 칠한 자기를 창조하는 등 나름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한국인들은 중국식 인쇄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후에 금속활자를 창조하여 이 과정을 개선하였다고 소개하였다.

38) 김지훈, KU-CR-06-06 「중국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2006), 103쪽. 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은 인쇄술과 제지법 등의 4대 발명품은 물론 한국의 추석명절과 태극기, 바둑 등도 중국에서 유래된 문화라고

동남아 교과서에서는 중국의 문화적 영향이나 한국과 동남아가 중화문화권의 영역 안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중국문화권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부 필리핀 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에 중국 작가 차오주쿠아(趙汝适)의 글만을 인용해 중세 한국의 가옥, 의복, 통치 방식이 중국과 흡사하다고 서술하여 중국이 한국의 정치, 문화, 생활관습에 미친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III. 강조 축소로 인한 파생 이미지

앞의 절 1에서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무엇인지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한국과의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이미지의 반영으로, 각국의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투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 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세계 각국의 사회과 교과서 서술 내용으로부터 투영된 한국의 국가 이미지들은 역사적으로는 피동적이고 타율적이며, 문화적으로는 내용이 부실하고 생략된 부분이 많아 결핍되어 있다.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서술이 주는 전쟁국가라는 이미지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의 가장 강한 부분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원조를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한 서술 내용을 통해서도 신흥공업국의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그러나 앞 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한국 관련 내용과 그 내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서술하고 있다. 또한 대만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한반도의 고대왕조인 삼국이 중국으로부터 정치·문화·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사진·그림·도표 등의 시각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일부를 중국의 영역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대 중국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이와 같은 표시들은 중국권 학습자들에게 한국이 오랜 역사를 지닌 독립국이 아니라 중국의 오랜 번속국이었다는 잘못된 이미지마저 심어줄 여지가 있다.

표6-외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지역	주요 이미지 (역사적으로)피동적· 타율적 이미지	전쟁국가· 분단국가 이미지	신흥공업국 이미지	소략·축소된 문화 이미지
미국	○	○	○	△
중국	○	○	△	○
일본	○	○	○	×
유럽	○	○	○	
러시아·CIS 국가	○	○	○	
동남아시아	×	○	○	△
중동	○	○	○	
중남미	○	○	△	○
호주	×	○	○	

(○: 그렇다 △: 일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단편적이고 과편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수밖에 없다. 이처럼 단편적이고 과편적인 이미지로 인하여 학습자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완전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어렵고, 만약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이미지가 아닌 반복적으로 주어진 간헐적 정보로 인해 또 하나의 왜곡된 국가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국가라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접한다면 한국은 전쟁으로부터 여전히 불안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한국에 대한 불완전한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건을 통해 불완전한 이미지 바탕 위에 파생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한국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더욱 어렵게 한다.

표6은 표2의 한국에 대한 서술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지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전쟁 서술 내용에 의한 전쟁국가 및 분단국가 이미지가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이미지이자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이미지이다. 비록 한국전쟁 당시 각국의 개입 정도에 따라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이 전쟁국가이며 여전히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는 공동의 역사적 기억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전쟁국가,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는 전쟁 그 자체가 주는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이러한 이미지를 쇠신할 만한 대상 이미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한국전쟁은 학습자들의 기억 속에 이미 60여 년 전에 종결된 전쟁이 아닌 진행형으로 남아 다시 한국은 위험한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를

파생시키고 있다.

물론 전쟁국가였고 여전히 분단국가이지만, 이를 극복할 만한 긍정적인 한국 이미지로는 신흥공업국으로서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흥공업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 역시 이미 1990년대의 신흥공업국의 단계를 넘어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IT강국, 경제 중진국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추가 이미지 형성에 실패함으로써 한국은 여전히 1990년대 제조업 중심의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만 머물게 되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과 역경을 뛰어넘은 신흥공업국이라는 이미지의 형성 배경에는 한국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과 낮은 임금, 높은 교육열, 대기업 위주의 성장, 재벌, 정경유착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추가됨으로써 비록 경제적으로는 빠른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기에는 사회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은 국가라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표3에서 한국에 대한 서술 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전쟁, 한국역사, 신흥공업국에 대한 내용이고 한국문화와 관련된 서술 건수는 69건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리고 기술된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중국문화의 큰 흐름의 아류 문화로 표현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의 독창성 서술의 부재는 차치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내용의 부재가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한국문화에 대한 결핍의 이미지는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가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소프트 파워를 확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조차 없다는 문제점뿐 아니라,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을 때 한국문화라기보다는 중국문화 혹은 일본문화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상 살펴본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그로 인해 파생된 이미지는 전쟁국가에 분단국가이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라는 것이다. 또한 신흥공업국이라는 이미지는 경제적으로 공업국으로 성장한 이미지와 공업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적 한계를 형성할 수 있다.

IV. 교과서 내 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로는 ① 역사적으로 피동적·타율적 국가라는 이미지, ② 한국전쟁에 의한 전쟁국가 및 분단국가 이미지, ③ 신흥공업국으로서의 공업국가 이미지, ④ 소략·축소된 문화적 이미지이다.

이 가운데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가장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미지는 ② 한국전쟁에 의한 전쟁국가 및 분단국가 이미지, ③ 신흥공업국으로서의 공업국가 이미지이다. 이로 인해 파생된 국가 이미지는 전쟁국가이자 분단국가로 전쟁의 재발 가능성을 가진 위험한 국가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또한 신흥공업국의 국가 이미지는 개발도상국의 국가 이미지로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신흥공업국의 이미지는 과거 동아시아의 작은 전쟁폐허 속에서 굳건히 일어난 강한 국가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소프트 파워가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는 신흥공업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는 오히려 문화적 역량이 부족한 제조업의 굴뚝산업이라는 국가 이미지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역사적으로 언어·예술과 문화의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실제로 프랑스는 라팔(Rafale)이라는 전투기의 제조국이자 테제베(TGV)라는 고속전철의 기술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기술 강국의 이미지는 희석되어왔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홍보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문화 중심적 이미지에서 기술입국 이미지로의 변화를 위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³⁹⁾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과거 동아시아 문화의 패권국의 이미지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며 경제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에 의해 지배를 받아왔다. 최근 G2로서 미국과 버금가는 세계의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러한 하드 파워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들의 정서적 호감, 가치관과 문화적 매력, 국제적 평판으로 나타나는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자(孔子)'라는 가장 세계화된 브랜드를 가지고 국가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⁴⁰⁾

39) 이찬우·서용구, 「국가 이미지 관리에 관한 선진국 사례연구」, 『경제경영논집』 제30집 제1호(2001), 127쪽.

40) 이내영·정한울, 「소프트파워 경쟁과 한국매력외교 과제」, 『EAI 여론브리핑』 제76호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들을 살펴보다라도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교과서에 나타나는 한국의 이미지인 전쟁국가, 신흥공업 국가라는 국가 이미지를 넘어서는 이미지 발굴이 필요하다. 그 한 예로 미국 사회과 교과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서술은, 전근대사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통문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일본의 전통문화 발전에 대한 서술은 중국에 비해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강조되어 문화적 존재감마저 약한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에 반해, 일본의 전근대 문화, 특히 봉건시대 문화는 중국과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로 이해되고 있다.⁴¹⁾ 중국의 중화문화와 구분되는 일본문화의 차별성은 결국 미국 교과서 내에서 일본문화의 독창성 및 문화적 개성으로 연결되고, 중국문화와는 다른 문화적 감성을 가진 문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문화적 이미지는 장기적·지속적인 국가 이미지 개선사업을 통해 그들이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국가 이미지의 발굴과 기존 이미지의 쇄신이 결국 미국 사회과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대만, 일본 등의 일부 국가 사회과 교과서에 최근 불고 있는 한류와 한국 드라마, K-팝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보더라도, 세계적인 보편성과 차별성을 겸비한 문화적 자원이 개발되고, 이를 우리의 독특한 문화적 이미지로 만들어간다면 결국 교과서는 그 사회가 형성하고 있는 인식과 담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중국, 일본과는 차별화되는 한국의 개성적인 문화적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서술되고 있는 한국 이미지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국

(2010), 3쪽.

41) 강선주·최상훈,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9학년 이상에서 사용되는 6권의 미국 세계사 교과서 분석-」, 『역사교육연구』 제1호(2005), 30쪽.

이미지를 개략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역사가 서술되는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중국의 영향권에 인주해 있다가 다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된 세계 정치적·역사적 큰 흐름 속에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동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그려진다. 여기에 미·소 양국에 의한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으로의 전개로 인해 한국은 보잘것없고 타율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아류라는 이미지이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정치적·문화적 영향권 아래 있었고,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점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교과서 서술에서의 중화문화권의 영향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확대는 우리 문화의 문화적 창조성과 독창성의 희석으로 귀결되고 있다.

셋째, 한국전쟁에 대한 이미지이다. 사실 한국 관련 서술 시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한국전쟁이 현대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발발한 국지적·세계적 이념전쟁이라는 점에서 세계사상 중요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은 자국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냉전의 한 축이었던 미국의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한국전쟁의 발발, 전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제공과 함께 전쟁 당시 미국 주도하의 미국의 활약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또 다른 한 축이었던 중국의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 한국전쟁은 미국의 북한침공에 따른 중국 영공 및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에 항거한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爲國)’을 위한 전쟁으로서, 신중국 성립 이후 처음으로 중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승리한 전쟁이다. 이와 같은 서술관점의 차이를 살펴보다라도 교과서에 서술되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이미지는 정작 한국전쟁의 직접적 대상국이며 가장 큰 피해국인 한국이 서술에서 배제되고, 기술국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피동적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사에 대한 전후 맥락 전개 없이 한국전쟁이 기술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국전쟁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의 공식적 기억임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신흥공업국으로의 이미지이다. 대부분의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

서에서 한국은 단시간 내에 신흥공업국이 된, 국가에 따라서는 여전히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역동적인 국가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 이미지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한국 이미지로 인해 앞서의 미온적·타율적 이미지를 상쇄하거나 전환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사 서술에 대한 상호 간의 미약한 연결고리로 인해 한국이라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기에는 역시 부족함이 있다.

각국의 사회과 교과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즉 중화 문화권, 한국전쟁, 신흥공업국이라는 사실적 서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극적이고 나약한 이미지와 창조와 적극적인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전체 혹은 부분을 서술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로의 전환 계기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과의 관계는 대부분 한국전쟁을 통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가지는, 그리고 그에 따른 남북 대치라는 현 상황이 겹쳐지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한국전쟁에서부터 연속선상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단절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정부가 추진한 괴테문화원(Goethe-Institut)과 현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다 국가적·학술적·민간적인 차원에서의 전 방위적이고 다층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30년 전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기꺼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자처했지만, 세계 G2 중 하나라는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지금, 문화가 파워라는 점을 인지하고, 자국의 소프트 파워 확대를 위해 세계 속의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확산은 물론 중국정부 주도하에 중국의 소프트 파워 증대를 위해 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를 살펴보더라도 한 국가의 이미지는 그 국가의 종합국력이자 소프트 파워임을 알 수 있고, 이런 점이 한 국가에 대한 이미지 혹은 인식의 전환을 어렵게 하는 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와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실제 세계 속에서 그려지는 한국의 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정확히 인식하고, 가장 전통적인 한국 브랜드의 세계화를 통해 한국 전통 역사, 문화 코드의 보편적 가치관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선주·최상훈, 「미국 세계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9학년 이상에서 사용되는 6권의 미국 세계사 교과서 분석-」. 『역사교육연구』제1호, 2005, 30쪽.
- 기계형, 「러시아 대학의 역사학 교재와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 인식」. 『역사교육』, 제117집, 2011, 91-98쪽.
- 김상미, 「전쟁 관련 사진전에 나타난 공식기억의 양상과 분단이미지 -기록과 예술의 매체로서의 사진-」. 『인문과학』 제47집, 2010, 181쪽.
- 김유경, 「국가 브랜드 개성의 차원에 대한 연구」. 『광고연구』 여름호, 2007, 91쪽.
- 김지훈, KU-CR-06-06 「중국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 박소영, KU-CR-09-01 「일본,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 베이세노바 알리야 사르세노브나 외, 『지리 -세계지역개괄-』. 맥텡, 2007.
- 유엔티밍프영, 『선택 주제에 대한 추가자료: 지리 11』. 교육출판, 2010.
- 이길상·전택수, KU-CR-07-01 「미국 교과서 한국 관련 집필자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 이내영·정환울, 「소프트파워 경쟁과 한국 매력외교 과제」. 『EAI 여론브리핑』 제76호, 2010.
- 이찬우·서용구, 「국가 이미지 관리에 관한 선진국 사례연구」. 『경제경영논집』 제30집 제1호, 2001, 127쪽.
- 임상선 외,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정재윤, KU-CR-06-05 「러시아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
- 최정희, KU-CR-07-07 「미국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 최진봉·유찬열, 「뉴욕타임즈와 로스앤젤레스타임즈에 보도된 한국과 일본의 국가이미지 분석」. 『동서언론』 제9집, 2005, 409쪽.
- 課程敎材研究所, 歷史課程敎材研究開發中心, 『中國歷史』七學年 下冊. 北京: 人民敎育出版社, 2008.
- 王秋原, 『社會 4』. 臺灣: 南一書局, 2009.
- 李季湄 主編, 『品德與社會』六年級 上冊.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6.
- 人民敎育出版社 課程敎材研究所·地理課程敎材研究開發中心, 『地理』(必修). 北京: 人民敎育出版社, 2004.

戚万學, 『品德與社會』五年級 下冊. 北京: 教育科學出版社, 2006.

Ahn Ji-Young, "Narratives of the Korean War in Chines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2, No. 1, 2009, pp. 35-36.

Andy Palmer et al., *Edexcel (A) Advanced Geography*. London: Phillip Allan, 2005.

Annette Ciattoni, *Geographie*. Paris: Hatier, 2004.

Anton Golecki, *Geschichte der USA*. Bamberg: C. C. Buchner, 2000.

Antonio Brancati, Trebi Pagliarani, *il nuovo DIALOGO con la storia 3 il Novecento*. Milano: La Nuova Italia, 2007.

Ben Walsh, *Edexcel GCSE Modern World History*. London: Hodder Education, 2009.

Christian Bouvet, Jaen-Micheal Lambin, *Histoire-Geographie*. Paris: Hachette, 2003.

Franz Xaver Heckl et al., *Fundamente Kursthemen. Der asiatisch-pazifische Raum*. Gotha: Klett-Perthes, 2003.

Garrett Nagle et al., *AS & A Level Ge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Grace Estela C. Mateo, et. al., *Asian civilization: History and culture*. Quezon city: Vibal Publication, 2006.

Guillaume Le Quintrec et al., *Histoire*. Paris: Nathan, 2008.

Jackson J. Spielvogel, *World History*. Glencoe: McGraw-Hill, 2008.

Jeong Jae Yun, "The Korean War in European Social Studies Textbooks."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2, No. 1, 2009, pp. 65-67.

Jerry H. Bentley, Herbert F. Ziegler, *Traditions and Encounters: 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 Glencoe: McGraw-Hill, 2008.

J. Willian Vesentini, *Geografia série brasil*. Sao Paulo: Editora Atica, 2006.

Karin Laschewski-Müller, *Kursbuch Geschichte - Neubearbeitung. Von der Antike bis zur Gegenwart*. Berlin: Cornelsen, 2009.

Marialba Pastor, *Historia Universal Contemporánea*. Mexico D. F.: Santillana, 2008.

Paul Guinness, *Globalisation*. London: Hodder Murray, 2003.

Simon Ross et al., *Essential AS Geography*. Cheltenham: Nelson Thornes, 2000.

Susan Ramirez et al., *World History: Human Legacy*. Austin: Holt, Rinehart

and Winston, 2008.

В. И. Максаковский , *Географи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 социальная 10*. Moscow: ПРОСВЕЩЕНИЕ, 2008.

В. П. Максаковский , *ГЕОГРАФИЯ 10*. Moscow: ПРОСВЕЩЕНИЕ, 2000.

Н. В . Загладин, *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 векX11*. Moscow: русское слово, 2005.

М. А. Бойцов et al., *Истрия Средних Веков 6*. Moscow: русское слово, 2005.

국 문 요 약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 분석을 통해 외국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① 역사적으로 피동적·타율적인 국가 이미지, ② 한국전쟁에 의한 전쟁국가 및 분단국가 이미지, ③ 신흥공업국으로서의 공업국가 이미지, ④ 소략·축소된 문화적 이미지로 분류된다.

외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특히 강조되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한국전쟁에 의한 전쟁 및 분단국가 이미지와 신흥공업국으로서의 공업국가 이미지이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미지는 부족, 결핍된 상태로 한국문화의 독창성 서술의 부재는 차치하고 한국문화 자체에 대한 내용의 부재도 심각하다.

세계 각국의 필요에 의해 단편적·단절적으로 취사선택된 내용에 의해 형성된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한국이라는 총체적인 국가 이미지를 가지게 하기는 어렵다.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한국이 가지는 전쟁국가, 분단국가의 이미지는 전쟁 그 자체가 주는 강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이러한 이미지를 쇄신할 만한 대상 이미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여전히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분단국가 이미지를 파생시키고 있다. 또한 신흥공업국으로서의 공업국가 이미지 경제적으로 공업국으로 성장한 이미지와 공업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 이미지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핍된 한국의 문화 이미지는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가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소프트 파워를 확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 문화조차 없는 문화적으로 제한된 이미지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세계 각국 사회과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단절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정부가 추진한 괴테문화원(Goethe-Institut)과 최근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다 국가적·학술적·민간적인 차원에서의 전 방위적이고 다층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2. 1. 2.

수정일 2012. 2. 10.

게재 확정일 2012. 2. 22.

주제어(keyword) 외국 사회과 교과서(social science school textbooks in foreign countries), 국가 이미지(national image), 파생 이미지(derived image), 전쟁국가(war-torned country), 분단국가(divided country), 신흥공업국(emerging industrial country)